

## 제 8 강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 - 무신론들의 그리스도교 비판을 통해 배우기

## 7강 복습

- 종교 다원적 상황
- 종교 간 대화의 다양한 모델들
- 종교 다원적 상황에서의 선교
- 예수의 유일성에 대한 새로운 고백과 해석
- 종교 간 대화를 넘어 종교인들간의 만남과 대화
- 상호배움과 성숙



그림출처, 방한암 스님의 좌탈  
<http://blog.daum.net/0118983530/8438966>

지난 주에는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 이웃 종교인과의 만남과 대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자본주의적이고 거대 기업친화적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이제 세계는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그래서 종교와 문화, 그리고 가치의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시대에도 이집트, 로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교류 속에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또 다른 의미에서 종교 다원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지난 역사 동안 유교와 불교 등의 외래 종교를 받아들여 전통 문화 속에 한국 토착종교와 외래종교의 만남이 있어 왔고, 한국 그리스도교는 이제 약 230년밖에 되지 않은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간 만남과 대화는 한국의 종교인들에게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모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다른 사람이 선택한 종교를 사탄으로, 그 종교의 가르침을 거짓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배타주의적 행위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진리와 믿음의 내용을 전할 때에도 타자를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대화와 포용과 수용의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 종교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문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는 잘못된 믿음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닌지, 종교인들의 대화는 서로의 신앙을 성찰하고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개념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듯 이웃 종교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풍성한 종교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나 종교 상대주의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자신의 종교에 대한 헌신과 애정이 떨어질까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진지한 종교인들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훨씬 더 자신의 종교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교도 이웃종교인들과 함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단순히 개종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일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땅의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웃종교들과 함께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000 : 그동안 그리스도교에서는 순교를 말해왔고, 또 순교자를 높이 평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는 것은 그 자체로는 좋지 않은 것일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살리려다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그런 순교를 높이 평가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순직이나, 재난의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분들은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억하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다가오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았다면 한편으로 그것도 존경받아 마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가 혹시 저 종교는 거짓이고 내 종교만 진리라는 착각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 없이 일종의 폭력적인 선교를 하는 가운데서 벌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순교를 옳다고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자살폭탄 테러가 그러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벌어지는 일들 아닐까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진정한 순교인지 아니면 헛되게 목숨을 버린 것인지 진지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자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벌이는 모든 종교적 행위 특히 선교는 무척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서의 어떤 부분은, 특히 바알 신앙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시대적 사회학적 성서 읽기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신앙에 대한 적개심이 바로 이웃종교인 불교나 이슬람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높이는 우상숭배는 그리스도교 안에도 존재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바알신앙이라든가 우상 숭배를 이해해야지, 우상 숭배라는 빌미로 이웃종교에 대하여 함부로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악마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결론 부분에서 강조했지만 종교간 대화 전에 자신의 신앙의 성찰이 더 필요하고, 각각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신앙과 행위를 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종교인들이 함께 만나 대화를 한다면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종교는 없을 테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일제 강점기의 선승이셨던 방한암 스님의 좌탈 모습이십니다. 어떤 종교인이든 그 종교의 높은 가르침을 몸의 훈련과 일상수행을 통해 체현하신 분들은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 몸가짐만 보아도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 그런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하고, 이웃 종교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런 기회가 더욱 많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주 복습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 8강 아픈만큼 성숙해지고~



그림출처, <http://yawang.tistory.com/category/%20과%20信%20사이>



그림출처, [http://freeview.org/bbs/board.php?bo\\_table=f003&wr\\_id=356](http://freeview.org/bbs/board.php?bo_table=f003&wr_id=356)

오늘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한 번 보시지요. 그림을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대충 짐작하시겠지요. 여기 <신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 책의 부제는 “종교 폭력의 진화적 기원”입니다. 옆에 어린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전쟁 훈련을 하는 것 같고, 그 옆의 그림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을 비꼬아 말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지요.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텐데요. 자! 종교는 인류에게 긍정적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종교가 인류에게 미친 악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말해 보시겠어요.

000 : 옛날로 치면 마녀사냥일테고, 오늘로 치면 소수자의 탄압 같은 것.

000 : 자살폭탄테러.

000 : 억압의 도구, 사유재산제도에서 가진 자가(권력이든 재산이든) 피지배계급을 착취하며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는 수단.

000 : 고통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아편 같은 역할.

000 : 서구 열강들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식민지 개척, 약소국가들을 지배, 전쟁

000 : 계급 만들기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목적은 인간의 ‘자유’와 ‘해방’과 ‘서로 사랑’ 등등에 있을 텐데 왜 종교가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런 종교의 폐해들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종교가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000 : 이게 종교 때문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본성 때문인가요? 종교의 지향과 방향은 옳은데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어떤 모습이 종교를 그렇게 변형시키는 것 아닐까요?

000 : 어차피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종교는 인간의 현상이니까. 종교의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 발굴해서 그것을 잘 하도록 돕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인지 우선 생각을 하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찰하고, 내 터와 땅과 일터와 등 전세계적인 관계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대의라든가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최선의 답을 향해 늘 노력하도록.

000 :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을 더 깊이 성찰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오늘은 무신론자들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지난 인류의 역사에서 벌인 죄악들을 보면 종교가 정말 없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게 들리기도 하지요.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날의 무신론은 종교를 부인하거나 깨부수는 역할을 한다기 보다는 조금 다른 지평을 열어 줍니다. 즉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세속화 된 이 시대, 즉 종교시대 이후의 믿음이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지평을 가리고 있습니다. 무신론은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과 신학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 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무신론의 주장이 넘칠 때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물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무신론은 글자 그대로는 “신이 없다”라는 주장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무신론에 물들어서도 안되고 무신론자들과 맞서 싸워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무신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이전의 그리스도교 신학과 신앙을 성찰하고 새 시대에 맞는 신학과 신앙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교를 믿지 못하겠고,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감과 혐오감마저 보이는 이유는 그리스도교가 그만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비종교인들이 현재의 그리스도교에게 보이는 이러한 현상에는 그리스도교를 오해한 것도 있겠지만 책임은 그리스도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반성과 성찰을 위해서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깊이 경청해야 합니다. 종교의 교리나 가르침은 올바른데, 그것을 실행하는 교인들이 문제라면 교인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겠지만 어떤 교리나 가르침이 오늘날의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라면 그 교리 자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신론자들 덕분에 현 시대에 제대로 응답하는 종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저런 자리에서 그리스도교로 인해 많은 실망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교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철저히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맹목의 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점은 타인의 충고가 필요한데, 바로 무신론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양한 무신론을 말하기 전에 오늘 현대인들이 유일신론적 종교들에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것 아닐까 합니다. “하느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우리에게 보여 달라”

## 하느님이 계시다면 보여달라!

- 과연 하느님이 존재하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여줄 수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 오직 수치화되고 측정될 수 있는 것들만 존재한다?
- 자연과학적 인식방법과 신앙적 인식 -> 다른 범주
-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우세와 의미의 문제
- 반성 : 종교가 비가시적, 추상적 사유체계 속에 머문 것은 아닌가? 구체적 실생활과 종교의 문제



그림출처,  
<http://www.birdcenter.kr/?MenuID=37>

오늘날은 정말로 신의 존재를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대 중세에는 하느님 존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으나, 자연과학의 발달로 세상의 거의 모든 현상을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오늘날, 그리고 인간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끄는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고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하느님을 말하는 것은 별로 믿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식의 생각이 일반화 된 것이지요. 자연과학적 사유가 발달하면서 수치화하고 측정될 수 있는 것들만 존재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런 것들 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런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자연과학이 가져다 준 문명의 이기와 실용성은 인류에게 많은 유익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과학으로 인간의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절하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 의미, 사유의 능력 등등 과학과는 다른 여러 가치들이 있음을 현대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자연과학적 방법론과 인식론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자연과학적 방법론과 다른 신앙의 방법론은 또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새의 주둥아리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를 관찰하고 연구하는데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새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살기도 하고, 새가 하늘을 나는 모습에서 자유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누릴 때 꼭 새의 주둥아리를 측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자연과학의 발달과 세속화를 통해 그리스도교가 성찰할 지점은 그 동안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이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너무 추상적, 형이상학적 사유에만 머문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자연과학이 주

는 정보와 지식에 너무 무관심하고 수용하지 못한 점도 살펴야 합니다. 자연과학과 종교는 서로 상호보완적이 될 수 있음에도, 서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모른체 하다보니 나중에는 적대적이 되거나, 각각 자신의 측면에서만 폐쇄적이 되어 인간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삶에서는 부분적인 대답만을 주게 된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지옥의 틀 안에 갇힌 내세지향적 종교에서 탈피해서 현세의 구체적인 삶에 참여하는 종교가 되려면 자연과학적 지식과 정보에도 민감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과학의 발달로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은 또한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신(神)은 인간(人間)의 투사물이다!!

- 포이어바흐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그의 힘, 능력, 고유함을 끄집어내어 – 다신교에서는 이것들 각각을 개별 존재자로 형상화하고, 일신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존재자로 형상화하지만 – 결국에는 그것을 마치 독립적인 존재자로서 신격화한다.
- 인간의 자기 소외 문제
- 신이 인간의 투사일 뿐인가? 전적 타자
- 반성: 신인 동형론적 사고와 욕망의 투사, 내면의 자연적 신성에 대한 이상숭배



그림출처,  
<http://jime.egloos.com/1016380>

이제 앞으로 등장할 모든 무신론의 강력한 기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포이어바흐의 생각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신학의 비밀은 인간학이며 종교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을 주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계시하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sup>1)</sup> ‘신학은 인간학이다’라고 말했던 포이어바흐는 『종교의 본질에 대하여』에 와서는 인간과 더불어 자연을 추가함으로써 신학은 인간학이요 생리학이라고 말하지요.<sup>2)</sup> 그의 주장을 간단하게 말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려는 소원<sup>3)</sup>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보존 본능이나 이기심으로도 불러도 좋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서 충분히 만족되지는 못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인간은 욕망의 더 큰

1) 루트비히 포이어바흐, 『종교의 본질에 대하여』, 강대석 옮김(파주: 한길사, 2006), 65.

2) 루트비히 포이어바흐, 『종교의 본질에 대하여』, 강대석 옮김(파주: 한길사, 2006), 68.

3) 포이어바흐가 생각하는 인간의 가장 뜨겁고 가장 은밀하고 가장 성스러운 소원과 생각은 불사의 생명에 대한 소원과 생각, 불사의 존재가 되고 싶은 생각과 소원이다.

만족을 위하여 추상화 능력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구체적인 자연의 사물과 현상을 본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사유로만 가능한 환상적인 것을 본질로 보며 모든 것을 거기로부터 연역하게 됩니다. 바로 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포이어바흐가 보기에 종교란 인간의 행복욕, 유한성, 상상력, 무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 종교적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신에게 투영시킨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종교는 인간 생활의 불의와 해악을 고치기어니 인간을 더욱 몽매성에 빠뜨려 억압을 가속화 시킬 뿐이라는 것이 포이어바흐가 주장한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신에게 넘겨 버리는데, 사실 신이라는 것도 인간이 상상력으로 창조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개인의 힘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투사한 신에게 자신의 문제를 맡겨 버리므로 오히려 인간은 자신의 그 문제로부터 멀어지는 소외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000 : 포이어바흐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용서도 자기가 하면 될 걸, 하느님에게 넘겨 버리잖아요.

한문덕 : 그런 점이 있지요. 영화 “밀양”에서 그 문제를 잘 다루고 있지요^^

포이어바흐의 비판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반론이 있습니다. 정말 신이 인간의 투사일 뿐인가? 하는 것이지요. 신의 존재증명도 불가능하지만 포이어바흐의 투사이론으로 신의 비존재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포이어바흐가 말한 유(類) 전체로서의 “인간”은 이전의 그리스도교 신학이 말했던 “신”만큼이나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피해 갈 길이 없지요. 인식과정을 통해 알게 된 세상은 이미 해석된 세상, 경험된 세상이며,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투사된 세상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듯이 신을 인간의 투사라고 해서 신의 존재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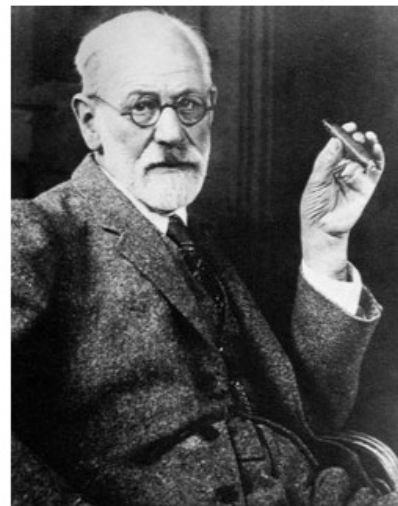
그런데 포이어바흐의 이러한 주장을 경청하면 그리스도교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교 신학이나 신앙이 말해 온 하느님이 신인동형론적 사고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모두 인간 같은 하느님이라는 것이지요. 질투하는 하느님이라든지, 벌을 내리신다든지, 또는 사랑을 한다고 할 때도 인간적 맥락의 이야기를 신에게 가져다 붙인 것이 아닌지 성찰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신 논의는 투사를 피해갈 길이 없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준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특별히 인간의 욕망을 하느님께 투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이르면 이건 정말 성찰의 대상이 됩니다. 길목 협동조합에서 한달에 한번 하는 ‘영화로 세상 읽기’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았던 ‘사이비’라는 애니메이션이 이러한 것을 매우 잘 그리고 있습니다. 종교적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욕망과 무능, 소망 등을 하느님께 투사하고 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내 내면에 있는 어떤 부분, 특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 내용을 깊이 성찰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이어바흐의 이런 분석은 이후 다양한 버전의 무신론으로 이어져 갑니다. 프로이트, 맑스, 니체, 도스트오프스키 등등. 다음에 살펴 볼 분은 프로이트 선생입니다. 본래 심리학은 현상학적 경험적 학문이므로 ‘심리학적 실재’에만 관심을 국한시키기에 신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심리분석가이기 이전에 이미 무신론자로서 ‘방법적 무신론’을 수용했고, 포이어바흐에게서 배운 투사설을 심리 분

석적으로 심화시켰습니다. 즉 그는 종교의 심리적 기원이 종교의 본질을 설명한다고 보았습니다. 생명의 상실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유아적이고도 가망 없는 욕망, 불의한 사회에서 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소망, 지상의 존재를 사후까지 연장하기 바라는 욕구, 세계의 시원을 알고 싶고 육체적인 것의 관계를 알고 싶은 희망 등이 종교의 본질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소망은 ‘아버지 콤플렉스에서 유래하는 아동기의 갈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 신은 아버지에 대한 환상일 뿐!

- 프로이트 : 포이어바흐의 투사설에 대한 심리분석적 심화
- 하느님 중독의 문제
- 종교에 있어서 무의식의 문제
- 性に 대한 그리스도교의 태도



그림출처,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9/05/29>

물론 이러한 프로이트의 가정이 신의 존재와 비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이어바흐에게 했던 신학자들의 비판과 동일한 맥락에 있지요. 프로이트의 주장은 신의 표상과 관련된 언급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신의 객관적 실재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내면세계 안에 구성된 신의 표상이 어떠한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프로이트와 종교』, 22)고 프로이트는 말하지요. 인간의 심리 내면에 자리한 신 표상은 그 인간의 성장 경험에서 의미 있는 타자들, 특히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사실 인간은 누구나 신 표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무신론자들은 자신의 역사적 발달과정에 근거해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신 표상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살아있는 신의 탄생 - 정신분석학적 연구-』, 94).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즉 프로이트의 연구는 신앙에 있어서 심리학적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자신이 말한 대로 무의식의 발견은 인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만을 수용했던 계몽주의적 사고를 비판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무신론의 역할이 기존의 그리스도교 신학과 신앙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라면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발견은 데카르트 이후 주체와 정신에 대한 잘못 놓인 권위를 부수고 또 거기에 토대를 둔 신학과 신앙을 돌이켜 반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된 것이지요.



데카르트는 방법론적 회의를 통하여 인간의 정신과 신(神)에게서 확실성을 찾습니다. 인류의 이성, 그리고 그 이성의 완벽한 원형으로서의 신(神)의 개념은 주체와 객체, 중심과 주변, 정신과 몸 등으로 나타나는 이원론에서 정신에 대해 과다한 신뢰를 보내고, 몸이 활동하는 삶의 세계와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자연세계를 주변화 시키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신학에 있어서는 인간의 정신이 참여하는 도덕과 윤리, 자유 등에 무게 중심이 실려서 하나님의 기적, 성서의 상징 등은 모두 윤리적인 것으로 인간의 정신을 고취하는 것으로 치환되거나 삭제되어 버립니다. 또한 이러한 정신의 우위는 정신을 지닌 개인에게 집중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성의 약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신의 독주(獨走)를 막은 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이며, 이것을 통해 현대를 사는 인간은 자신의 의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욕망과 정신의 변주 속에서 활동하는 존재이기에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전통적인 하나님 이미지가 복수하고 징벌하는 부친상에서 유래했다는 것, 그 이미지에 너무 고착화 되어 있었고, 그 이미지를 근거로 교회가 초자아적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남용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깊게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하느님의 모습에 손을 들어 주었고, 성(性)에 대하여 지나치게 금욕적이었던 그리스도교 신학은 프로이트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프로이트가 말한대로 “정말 인간 존재는 단순히 성욕에 기반한 생물학적 심리적 존재뿐인가” 하는 비판이 있고, 뇌 과학의 발달에 따라 프로이트를 넘어서서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프로이트의 주장대로 신앙과 심리적 문제의 복잡한 연결고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세상의 고통을 보라! 신이 계신가?

- 포이어바흐의 자기소외의 문제
- 니체의 “노예도덕”과 맑스의 “민중의 아편”



그림출처,  
[http://ko.wikipedia.org/wiki/프리드리히\\_니체](http://ko.wikipedia.org/wiki/프리드리히_니체)



그림출처,  
[http://ko.wikipedia.org/wiki/카를\\_마르크스](http://ko.wikipedia.org/wiki/카를_마르크스)

프로이트가 포이어바흐의 심리적 심화라면 사회적, 철학적으로 심화시킨 사람이 바로 맑스와 니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종교는 고통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고통이 있지요. 나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거나 피해가거나,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일단 피하고 보자 이렇게 되기 쉬운데 바로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000 : 맞아요. 저게 바로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 직면이 잘 안되요. 회피해 버리고 안 보려고 하는. 사회에서 생긴 문제도 기독교인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느님에게 문제를 다 돌리고 빨리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에 있는...

그렇습니다. 종교의 여러 가지 기능이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위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통을 뛰어 넘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에 와서 통성기도라도 하고, 그래야 사실 살아남는 거거든요. 지금은 힘들지만 모든 것이 협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다라는 신앙은 분명 고통에서도 살 힘을 줍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통해 고통을 자꾸 피하기만 한다면 바로 그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맑스의 경우 고통의 원인은 지배자들의 착취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에 맞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심화되면 노예도덕이라고 비판한 니체의 주장과 같아지지요. 인간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하느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도 타파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당당하게 고통과 맞서 싸우는 초인이자, 나약한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형이상학적인 종교가 말해 왔던 하느님의 섭리라든가, 예정조화 같은 것은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와 국가의 변화에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권력과 사회 부조리를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국가 종교였던 독일 사회나, 그리스도교 왕국이었던 유럽에서 그리스도교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철저하게 성찰한 이들이 바로 맑스나 니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나 광신도를 보면 종교가 인간을 도리어 망치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그렇게 만드는 신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요.

포이어바흐, 프로이트, 니체, 맑스는 모두 고 중세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형이상학적 신에 대한 반동으로서 정말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사회적 심리적 인간들의 행위 속에서 종교는 어떤 의미이고, 하느님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넘어서서 악의 문제로까지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전쟁과 같은 인류 최대의 비극, 자연재해 등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또는 죄 없는 이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들과 못된 인간들이 잘 먹고 살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하느님의 존재 문제가 제기됩니다. 하느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세상에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살펴 봅시다.

## 세상의 악을 보라! 신이 계신가?

- 신정론의 문제 : 사랑, 전지전능, 악의 존재
- 악과 고난에 대한 탄식은 유신론의 터전
- “때문에”와 “위하여”를 넘어서 “더불어”로



그림출처,  
<http://blog.daum.net/wisdomwell/8627584>

우선 세상의 존재하는 악을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인재가 아닌 천재지변에 의한 것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지요. 천재도 가만히 살펴보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재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악도 자연적 환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악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지점은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악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악의 문제는 오로지 생명체가 존재하고 아픔을 느끼고 고통에 괴로워하는 존재가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악의 문제와 관련해서 오래도록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신정론의 문제라는 것이 있어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악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너무나 풀기가 어려워서 신학자의 지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썼고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첫째는 악과 고통을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느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 왔을 때 어떤 목사가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라는 소리를 했었는데, 바로 위의 해석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지요. 둘째는 악과 고통을 영혼이나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는 것입니다. 비 온 뒤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 23:10)고 말했다고 하듯이, 시련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셋째는 인간의 눈에 악으로 보이는 것도 전체의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악이라

할 수 없고, 큰 아름다움, 또는 전체의 질서와 조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느님의 올바름을 변호하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나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느님의 올바름을 변호하기 위한 이런 인간의 노력은 우선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에 의해 변호받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인간이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의 문제에 대해서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은 정작 고통 당하는 이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통을 하느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이중 고통에 직면하게 합니다. 사실 불행을 당한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면서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은 그 자체로 무척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설명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죄인이어서 그렇다는 것은 위로자로서 동지로서 친구로서 할 말은 아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흔히 하는 말이 “~을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겠냐고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하느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고통에 처한 사람을 달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수단이 하필 고통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고통을 당한 당사자가 자신을 되돌아 보면서 “그 때 그 실수로 인해 고통이 온 것이구나”를 깨닫거나,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시련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타인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던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다든지 말하는 것은 고통을 당한 이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2차 3차 가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악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일단 악이 발생하고, 고통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따져 묻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탄식과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무신론의 터전이 아니라 유신론의 터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탄식과 저항이 불가능하겠지요. 원래 그런 것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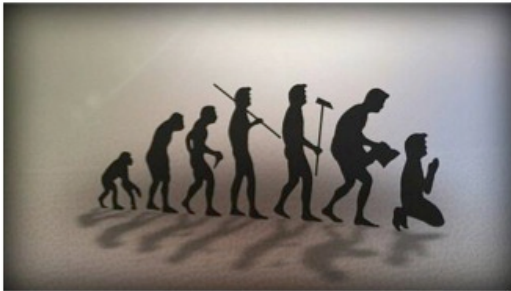
그래서 악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통과 악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문제에 똑바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통과 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고통의 현장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 주는 것도 큰 힘이 되지요. 곁에 있어 주지만 해도 든든합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고통이 발생한 원인부터 시작해서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시각 장애인을 고쳐 주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어떤 악은 개인의 힘으로만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합니다. 악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자라나며 어떻게 인간을 망치는지 잘 살펴보고 기억해서 악에 맞서 싸워야 하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고요. 지금의 실패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 고통 중에서도 파멸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느님 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날 악의 편에 설 것인지, 하느님께 순종할 것인지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행 5:29). 고통과 악의 문제는 “때문에”와 “위하여”를 넘어서 “더불어” 밖에는 없습니다. 고통 당하는 이와 끝까지 함께 하고 고통과 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는 자리, 하느님은 사실 거기에 계세요.

이제 거의 강의를 마칠 시간이 되어 가네요. 처음 시작할 때 도입부분에서 말씀 드렸지만 오늘날 가장 강력한 무신론은 아마도 과학적 무신론 아닌가 합니다. 사실 과학은 인류의

역사에서 근대를 열었고, 그 이후의 모든 인간은 종교보다는 과학에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진화된 동물로서의 인간과 종교!

- 진화론과 창조론의 문제 : 대립과 화해
- 우연의 산물인가? 자연선택? 방향성을 지닌 그 무엇인가? 지적설계론? 등등
- 반성: 신학과 과학은 모두 인간의 작업, 문자주의적 성서 읽기의 문제 등.



그림출처,  
<http://yas00.tistory.com/704>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종교라는 것도 결국 진화의 산물이고, 인간으로 진화한 동물의 사회에서 발생한 일종의 부산물로 여기고 있지요.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은 매우 오래되었고, 지금까지도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 언어로 설명하려는 노력도 있고, 지적설계론과 같은 이론을 끌어와 하느님의 세계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기도 하지요. 지적설계란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우주가 자연선택에 의해 존재할 수는 없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강가를 지나다가 반질반질한 돌맹이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오랜 세월 마찰에 의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시계를 주웠다면 아마도 돌맹이처럼 생각할 수는 없겠지요.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저절로 시계가 만들어질 리가 없으니까요.

또 진화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신학자들이 진화론을 비판하면서 세상은 우연의 산물일 수 없다라고 말해 왔는데, 진화론 자신이 우연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자연선택을 말했지요. 우연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자연선택이라는 것을 거쳐서 오늘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선택과 지적 설계론은 오늘날도 조금의 논쟁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와 과학의 관계, 종교와 과학의 목적 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이든 신학이든, 모두 인간의 작업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종교와 신학이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왜”를 묻는다면 기본적으로 과학은 “어떻게”를 묻지요. 이 둘은 서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첫부분부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교인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성서

를 너무 문자적으로 읽어와서 세계의 창조로부터 년수를 계산해서 우주 나이가 4천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듯 현대의 과학 발전에 무지하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요. 과학자도 과학주의나 과학만능주의에 빠지면 결코 인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물질문명은 발달했어도 허무나 불안 등 인간의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고, 그 모두를 과학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과학자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 없이 가능한 세상 ?



"One of the truly bad effects of religion is that it teaches us that it is a virtue to be satisfied with not understanding."

- Richard Dawkins

**\* 리처드 도킨스 :**

설명, 훈계, 위로, 영감이라는  
종교의 역할은

오늘날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도킨스가 부정하는 것 : 초자연적 인격적 유신론
- 다시 한 번 묻기 :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이며 종교란 무엇인가?

리처드 도킨스 같은 이는 신 없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종교가 해 주었던 설명, 훈계, 위로, 영감이 오늘 세계에서는 과학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이해 안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묻지마 믿음-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에서 비판하는 신론은 초자연적 인격적 유신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은 이런 하느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궁극적 해방을 위한 자유의 문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는 실천의 문제, 허무와 불안에 휩싸인 인간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학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킨스의 비판 정도로 오늘의 신학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잘못된 종교가 정치와 권력과 함께 하고 또 그런 힘을 가지고 타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면 미국이 정의의 이름으로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였던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기되는 이런 다양한 무신론들을 통해 오늘의 그리스도교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잘 아셨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한번 더 강조하겠지만 자연과학의 발달의 문제, 사회과학, 심리학 등의 인문학적인 성찰을 못하면 종교

는 무신론자들의 비판처럼 많은 부정적이고 잘못된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속성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그 무엇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과 소통할 수 없고 그러면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단절은 결국 신앙의 고립화를 가져와 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없는 세상이 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종교 없는 세상이 도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가진 종교와 믿음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고, 그 성찰의 방법은 계속 물으며, 타자의 충고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린 귀와 배움의 열정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

## 참고문헌

- 루트비히 포이어바흐, <기독교의 본질>, 한길사, 2008.  
 루트비히 포이어바흐, <종교의 본질에 대하여>, 한길사, 2006.  
 프로이트,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1997.  
 프로이트,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니체, <바그너의 경우, 우상의 황혼, 안티 크리스트, 이사람을 보라, 디오니소스 송가, 니체 대 바그너>,(니체전집 15) 책세상, 2002.  
 니체,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니체전집 14) 책세상, 2002.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김영사, 2007.  
 알리스터 맥그라스, <도킨스의 망상>, 살림, 2008.  
 김균진, <기독교신학 I>,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테리 이글턴, <신을 옹호하다>, 모멘토, 2010.  
 한스 쿡, <신은 존재하는가>, 분도출판사, 1994.  
 게르하르트 로핑크, <오늘의 무신론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2.